

제명통지서

2024년 5월 10일

이기훈 귀하

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심의 절차를 갖고 '제명'을 의결하였습니다. 이에 귀하께 통지합니다.

심사 과정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는 2024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 65차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및 선출직 이사, 전직 이사 등으로부터 상정된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을 토의한 결과, 협의회 수호 및 낙스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,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김미경 외 8인)를 구성함.

특별조사위원회는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4월 27일과 5월 5일 회의를 갖고 귀하의 헌장 위반 및 반사회적 불법행위, 낙스 신뢰도 및 명예 실추 등 징계 항목을 이사회에 상정함.

징계 결정

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함.

징계 사유

이기훈 씨는 협의회 정상화에 일조하겠다는 명분으로 반낙스측 자칭 16대 이사장직을 맡음으로서 협의회 분규를 고착시킨 장본인. 그후 불법이사회를 개최하고 또 총회장도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이사들과 학교대표자들을 불법모임에 참여토록하고 불법의결로 유도했음. 결과적으로 차기 총회장과 집행부의 출범도 없이 자칭 22대라고 하며 부회장을 총회장권한대행으로 추인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며 협의회 분열에 앞장섬.

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직책 'NAKS CEO' 란 타이틀로 허위 서류를 작성, 거래은행에 제출한 사기행각과 협의회 자금을 탈취한 범법 행위. 이는 반사회적 중범죄일뿐만 아니라 현 닉스의 재정을 고갈시켜 집행부 운영을 마비시킨 치명적 업무방해 행위. 나아가 순수한 열정으로 봉사하고 계신 교사들에게 심각한 자괴감을 불러 일으켜 닉스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킴.

[별첨]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

[별첨]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

1. NAKS 거래은행 대상 사기행위

추성희 총회장과 홍은정 재무만이 결재자로 등록되어 있는 낙스거래 은행(Wells Fargo)에 마치 자신이 새로운 대표자인양 허위서류를 제출(NAKS CEO Kihoon Lee & 동반 서명자 한연성 Yeon Sung Seo)한 행위. 당시 이기훈 씨는 반낙스측 이사장(Chairman)이었음에도, Chairman 이라고 등록하지 않고 협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CEO란 직책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은행을 속이기 위한 사기행위. 이 사기행위로 은행은 추 총회장과 홍 재무를 삭제하고 이기훈 한연성을 등록시키는 실수를 범함.

2. 낙스 공금과 직지재단 사업비를 포함한 총 \$47,510 탈취한 범법 행위

허위서류로 은행을 속인 후 은행 잔고 (직지재단 후원금 5 천 1 백불 포함) 총 4 만 7 천 5 백 10 불을 탈취함.

- 증거자료: 2024 년 4 월 9 일자 이메일

3. 이사장직 이용으로 낙스 분규의 장기화, 고착화한 행위

- 증거자료: 2023 년 11 월 17 일, 2024 년 1 월 1 일자 이메일

4. 불법 임시총회와 이사회 주도 행위

- 증거자료: 불법낙스 제 63, 64, 65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개최 공문

-끝-